

전남 학령인구 2년 연속 반짝 증가

전남 올 초고입학 대상 1만6528명...전년비 566명 ↑

출산 열풍·장려정책 '효과'...광주는 300여명 줄어

저출산 여파로 전국적으로 학령인구(學齡人口)가 감소하고 있지만 올해 전남지역 초등학교 입학대상자 수는 지난해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광주에서는 전국적으로 출생아가 많았던 '백호띠'(2010년생)들이 지난해 입학하면서 초등학교 입학대상자가 반짝 늘었다가 2년 만인 올해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전남은 증가세를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9일 전남도교육청이 집계한 올해 429개(60분교) 초등학교 입학 대상자는 1만 6528명이다. 실제 입학한 학생과 어느 정

도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크게 늘었다. 지난 2016년과 지난해 실제 입학 아동 수 1만5052명·1만5962명보다 각각 1476명·566명 늘었다.

도교육청은 올해 실제 입학한 아동 수도 지난해보다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초교 신입생 증가는 지난 2010년~2011년 출산 열풍의 영향으로 해석된다. 전남도와 도교육청의 각종 출산 장려정책이 효과를 거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전남도 등은 다자녀 근로자 자녀 장학

금 지원을 비롯한 자녀 꿈 키움 희망플러스 통장 개설·운영 등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을 펴고 있다.

도교육청은 오는 15일까지 각 초등학교별로 입학 예비소집 일정을 정한 뒤 이달 말까지 입학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예비소집을 마칠 계획이다.

반면 광주(155개교)는 올해 입학대상자 수가 300여명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입학 대상자 수는 1만4894명으로, 지난 2016년과 지난해 실제 입학 아동 수는 각각 1만4501명·1만5194명이었다.

입학 대상자가 지난해 소폭 증가한 뒤 다시 감소세로 돌아선 것이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2년 연속 도내 초등학교 입학 대상자 수가 늘었는데, 내년까지는 증가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

인다"며 "통계자료를 통해 추이를 살펴 과밀학급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입학하는 학생과 학부모는 예비소집에 참석해 취학통지서, 예방접종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방과 후 돌봄서비스 이용을 원한다면 수요조사서도 내야 한다.

다만 취학통지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했거나 예방접종 전산등록을 했다면 따로 서류를 내지 않아도 된다.

불가피하게 예비소집에 참석하지 못하면 반드시 사전에 학교에 불참 사유와 등록 여부를 알려야 한다. 2015년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면서 예비소집 불참 아동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보험사죠? 여기 사고났어요” 광주·전남에 폭설이 내린 11일 오전 광주시 서구 극락교를 지나던 차량들이 빙판에 미끄러지면서 충돌해 교통 혼잡을 빚고 있다.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눈길 교통사고 140건이 발생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눈폭탄 광주·전남, 육·해·공 '꽝꽝'

적설량 나주 26cm·광주 19cm
광주 3일간 교통사고 140건
광주·무안 항공기 24편 결항

사흘째 최고 30cm 가까운 눈폭탄이 쏟아지면서 광주·전남의 교통이 꽝꽝 얼어붙었다.

11일 광주·전남에 폭설이 쏟아지고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내려가면서 도로가 결빙, 출·퇴근길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잇따랐다. 항공기와 여객선의 결항도 속

출하면서 육지·바다·하늘이 모두 막혔다.

이날 광주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현재 적설량은 ▲나주 25.5cm ▲영광 24cm ▲함평 21.5cm ▲무안 19.7cm ▲광주 18.6cm ▲목포 17.2cm ▲영암 16.9cm 등을 기록했다.

이번에 내린 폭설로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랐다.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는 모두 140건. 평일 기준 하루평균 42.2건보다 많은 수치다.

광주·무안에서 김포·제주 등을 오가는 항공기 24편도 결항됐다. 뱃길은 전남지역 55항로 92척 중 38항로 54척이 통제 중이

다. 무등산·지리산·내장산국립공원도 입산이 모두 통제됐다.

특히 광주시교육청은 이날 공·사립유치원 309개에 대한 휴교령을 발령했다. 다만 어린이집은 원장 자율 의사에 따라 휴원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폭설로 인한 구조요청도 잇따랐다. 이날 새벽 4시55분께에는 순천시 승주읍 낙안읍성 주변 도로에서 관광버스가 빙판길에 고립돼 승객 20여명이 구조되는 등 광주·전남에서만 모두 수십 건의 빙판길 사고가 발생했다.

세쌍둥이 두달 간격 출산

임신 확률도 낮은 세쌍둥이가 2개월의 터울을 두고 출생연도가 다르게 태어났다.

11일 서울대병원에 따르면 세쌍둥이를 임신한 손지영(35)씨는 지난해 11월 13일 첫째 아이를 낳은 후 2개월이 지난 올해 1월 8일 나머지 두 명의 쌍둥이를 출산했다. 3명 모두 남자다.

2명의 쌍둥이는 해를 넘겨 출산함으로써 첫째 아이와 두명의 쌍둥이 사이에는 한살 터울이 나는 셈이다.

병원측은 태아 성장에 최적 환경을 갖춘 자궁에 한 명의 태아라도 오래 머물도록 함으로써 사망 위험을 줄이기 위해 순차 출산을 시도했다.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41 해질 17:40 | 달돋이 03:18 달질 14:14

주말부터 풀려요
구름 많은 가운데 아침까지 눈 날리는 곳 있겠다.

지역별 날씨 (°C)

광주	구름 많음	-10/-2	보성	구름 많음	-11/-2
목포	눈온뒤겹	-8/-1	순천	구름 많음	-9/-1
여수	구름 많음	-8/0	영광	눈온뒤겹	-11/-3
나주	구름 많음	-11/-2	진도	눈온뒤겹	-5/-1
완도	구름 많음	-6/0	전주	구름 많음	-13/-4
구례	구름 많음	-12/-3	군산	눈온뒤겹	-11/-2
강진	구름 많음	-9/0	남원	구름 많음	-14/-4
해남	구름 많음	-9/-1	옥산도	눈온뒤겹	-5/-1
장성	구름 많음	-11/-3			

◇ 바다 날씨

		오전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2.0~3.0	서~북서	0.5~1.5
	면바다	북서~북	2.0~4.0	서~북서	1.0~2.0
남해 서부	앞바다(동)	북서~북	0.5~2.0	북서~북	0.5~1.5
	면바다(서)	북서~북	1.5~2.5	북서~북	1.0~2.0
	앞바다(서)	북서~북	2.0~4.0	북서~북	1.5~2.5

◇ 생활지수

매우높음	니출중
매우높음	감기
보통	미세먼지

◇ 물때

목포	간조	만조
	03:43	11:05
	16:41	23:02
여수	간조	만조
	12:28	06:32
	---	18:12

◇ 주간 날씨

13(토)	14(일)	15(월)	16(화)	17(수)	18(목)	19(금)
☀	☀	☀	☁	☁	☀	☀
-5/5	-4/7	1/10	3/11	4/8	1/7	0/7

조선대 이사회 정상화 절차

15일 첫 이사회...이사장 선임 등 논의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이사회가 신임 이사장 선임 절차를 논의하는 등 법인 정상화를 서두르고 있다.

11일 조선대학교에 따르면 조선대 법인 이사회는 오는 15일 제1차 이사회를 개최한다. 이사회는 교육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임시 이사 9명을 선임한 뒤 처음으로 열린다.

이사회에는 최근 사학분쟁조정위가 추천한 임시 이사 6명이 참석한다. 황인창 전 조선대 교수, 이용복 전 전남대 부총장, 이정선 전 광주교육대 총장, 강신중 전 광주가정법원장, 강영필 법대위원장 인사, 박병호 광주시 행정부시장

이들은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된 법인 이사장 선출안, 학교 정관개정안·직제 규정안, 신임 교원 임용 건 등 주요 현안을 심의·의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선대 법인 제2기 이사회는 지난해 2월 25일 임기가 만료돼 8개월 동안 이사회 부존재 상태가 이어졌다. 조선대 구성원들은 2기 이사회가 규정된 축에 편중돼 있어 3기 이사회에서 이들을 배제해야 한다고 임시이사 파견을 교육부에 촉구, 교육부는 지난해 말 순차적으로 임시 이사 9명을 선임했다.

다중시설 기저귀교환대 세균 득실

대장균·황색포도상구균 검출...3곳 중 1곳 벨트·버클 불량

지하철역,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설치된 기저귀 교환대의 안전장치 미흡으로 영유아들이 다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교환대에서는 대장균 등이 발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여자화장실에 설치된 접이식 기저귀 교환대 30개에 대한 실태조사와 이용경

합차 설문조사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조사대상 기저귀교환대 30개 중 10개(33.3%)는 벨트·버클 불량으로 벨트를 아예 채울 수 없었다.

기저귀교환대 30개 위생실태 조사 결과, 교환대 4개에서 대장균이, 교환대 7개에서 병원성 세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다.

착한보청기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655-6544 (광주 남구 진월동 252-4 우리은행건물 3층)

오티콘코리아 광주직영점

오픈 1주년 기념 이벤트 지금 연락주세요

“서울 본사와 똑같은 서비스를 받아보세요”

- 정부보조금 최대 131만원 지원
- 보조금전용 보청기
- 보청기 테스트 & 청력테스트
- 무료 가정 방문서비스

오티콘보청기 광주지사
농성역 또는 화정역 4번 출구에서 100m 가량 직진 후, 1층(102호)

062-364-8800